

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um-ter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City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론 | 4. 청주·청원 통합시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향 |
| 2. 청주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현황 | 5. 제언 및 결론 |
| 3. 청주시 공공도서관 SWOT 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 |

초 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양적으로 도서관의 관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지,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 및 최근 정부차원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고, 둘째, 청주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셋째, 청주·청원 통합시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건립 및 운영 추이를 고찰하였고, 넷째,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조직 체계 확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any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competitively interested in founding and operating public libraries and carried out various projects for promoting them. Each local government, however, has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lacking in an effort to enrich the qualitative subst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dium-ter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by considering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public libraries, and resent government plans for libraries. To identify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founding and operating condition of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In the second, it suggested the medium-term and long-term strategic plans for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using SWOT analysis. In the third, it also reviewed founding and operating changes of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were integrated into one city. Lastly, the methods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were suggested.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정책, 도서관경영, 도서관건립계획
publ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management, library building plan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27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65-283,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265]

1.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이하에서는 '지자체'로 기술한다)들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보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식정보사회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수집과 축적 및 이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경쟁적으로 주력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IMF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예산의 감소, 인원 감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다. 그나마 다행하게도 1999년 12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도서관 관련 발언을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도서관계도 정부차원의 무관심으로 거의 고사 직전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 받고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도서관을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발전시키고자 2003년부터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이후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양적으로 도서관의 관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지,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청주시 또한 그러한 지자체들 가운데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청주시가 주민 수에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관수 면에서는 전국에서 중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2003년 청주시립정보도서관(현재 '청주시립도서관'으로 개명하여 사용하고 있음) 개관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주시의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및 운영 실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즉,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지만, 그 당시 청주시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의 충북중앙도서관 1개관뿐이었으며, 전국에서 시립도서관을 한 개관도 갖지 못한 유일한 지자체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청주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각종 교육문화 지표가 중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를 여전히 '교육문화도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도서관 발전계획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러한 자료로는 '양주시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양주시립도서관 2007), '2020년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 계획'(천안시 2008),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 계획 연구'(경기도 2008),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관악구 2011)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문헌 및 최신 청주시 통계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 및 최근 정부차원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자가 수행한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고, 둘째, 청주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셋째, 청주·청원 통합시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건립 및 운영 추이를 고찰하였고, 넷째,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조직 체계 확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청주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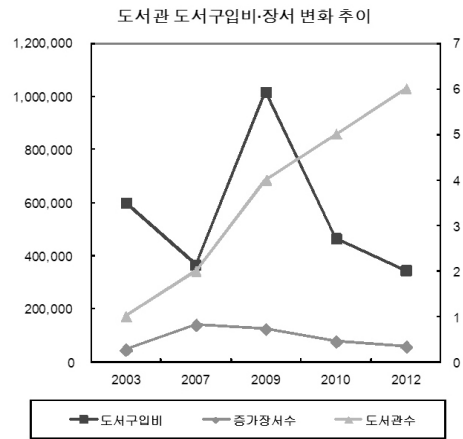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많은

자자체들이 '책 읽는 도시'나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청주시 역시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을 선도하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주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힘써온 결과,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주기적의도서관을 제외하고 2003년 청주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까지 북부, 서부, 신울봉 어린이, 상당, 남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측면에서 권역별로 6개 도서관을 짧은 기간 내에 확충하였다.

이제는 청주시의 공공도서관 문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측면과 휴먼웨어측면에서 노력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공공도서관 구성 요소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서 확충과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였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부문 외에도 급변하

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대처해야 한다.

우선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장서 현황, 자료구입비 변화 추이, 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장서 변화 추이는 <표 1>, <표 2>와 같이 나타나며, 이를 가지적으로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한편



<그림 1> 자료구입비·장서변화 추이

<표 1> 청주시립도서관 장서현황

(장서수: 권, 2012년 9월 말 기준)

도서관	봉사 지역	인구수 (명)	도서관 장서수 (A)	도서관법 기준 (B)	2015년 목표장서 (C)	전국평균 (10대도시) (D)	비교증감(비율)		
							법적대비 (A-B)	목표대비 (A-C)	전국대비 (A-D)
계	청주시	670,104	463,086	573,000	1,000,000	984,077	△109,914	△536,914 (46.4%)	△520,991 (47%)
시립	청주시	670,104	184,027	285,000	390,000		△100,973	△205,973	
북부	상당구	243,616	80,508	45,000	160,000		35,508	△72,806	
서부	홍덕구	426,488	70,683	117,000	140,000		△6,619	△69,317	
			39,698		80,000	△40,302			
상당	상당구	243,616	53,832	36,000	120,000		17,832	△66,168	
남부	홍덕구	426,488	34,338	90,000	110,000		△55,662	△75,662	

※ 도서관명은 도서관의 개관 일자 순으로 배열함.

※ 도서관장서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도서관자료기준에 따라 산정함.

〈표 2〉 자료구입비 변화 추이

구 분	도서관수	도서구입비(천원)	장서수(권)
2003	1	600,000	45,837
2004	1	410,000	88,484
2005	1	410,000	104,715
2006	1	170,000	127,104
2007	2	365,040	184,972
2008	2	150,780	206,313
2009	4	1,015,877	309,788
2010	5	465,897	386,795
2011	5	435,000	414,650
2012	6	345,000	463,086

전국에서 인구수 등이 유사한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결과는 〈표 3〉에서와 같다.

이처럼 청주시 자료구입비와 장서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공공도서관 수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도서관별 도서구입비와 장서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주시의 자료구입비와 장서수가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이를 타개하고 청원군과의 통합시 출범을 대비하여 2015년까지 전국 10대도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소장 장서

수인 1,000,000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표 4〉에서와 같이 매년 10억원씩 자료구입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별 장서의 특성화 주제에 따라 자료구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연도별 인력 현황 및 변화 추이, 타 지자체와의 인력 현황 비교 분석 결과는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3〉 타 지자체와의 자료구입비 및 장서수 비교 분석

(2012년 1월 말 기준)

지자체명	인구	도서관수	자료구입비(천원)	장서(권)	1인당 장서수
청주시	670,104	6개관	345,000	463,086	0.69
전주시	651,165	6개관	542,000	759,086	1.16
안양시	612,192	7개관	760,000	1,042,038	1.70
천안시	593,502	6개관	414,700	490,041	0.82
용인시	925,703	9개관	507,000	524,977	0.56

〈표 4〉 청주시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 계획(~ 2015년까지)

목표권수	현장장서수	장서확충	목표연도	연증가책수	연투자비	총투자비용
1,000,000권	444,650	560,000권	2015년	80,000권	10억원	70억원

〈표 5〉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2012년 9월 말 기준)

구 분	시설규모 (장서수)	법정직원수	현행직원수	부족직원수
계	16,504.8㎡ (463,086권)	136명	40명	96명
청주시립	5,370㎡ (184,027권)	48명	13명	35명
북부	2,618㎡ (80,508권)	22명	5명	17명
서부	2,480㎡ (70,683권)	20명	5명	15명
신울봉	990.6㎡ (39,698권)	11명	5명	6명
상당	2,681.2㎡ (53,832권)	18명	7명	11명
남부	2,365㎡ (34,338권)	17명	5명	12명

〈표 6〉 청주시 공공도서관 연도별 인력 현황 및 변화 추이

구분	2003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도서관(개관)	1	2	4	5	6	
소계(명)	19	28	36	41	40	
사서(명)	11	16	18	18	20	
행정(명)	4	4	9	9	9	
기타(명)	4	8	9	14	11	
1개관당 직원수	사서(명)	11	8	4.5	3.6	3.37
	직원(명)	19	14	9	8.2	6.6

〈표 7〉 타 지자체와의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 비교 분석

(2012년 9월 말 기준)

지자체명	인구	도서관수	1관당 서비스인구	전체직원수 (사서수)	1인당 서비스인구
청주시	670,104명	6개관	111,684명	40(20)명	16,344명(33,505명)
전주시	651,165명	6개관	108,528명	61(21)명	10,675명(31,008명)
안양시	612,192명	7개관	87,456명	86(35)명	7,118명(17,491명)
천안시	593,502명	6개관	98,917명	50(18)명	11,870명(32,972명)
용인시	925,703명	9개관	102,855명	105(42)명	8,816명(22,040명)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전체 직원수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현행 도서관 관련 법규에 명시된 법정직원수의 29.4%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2003년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이 개관된 이후 지금까지 도서관수가 6개관으로 늘어났지만, 사서를 포함한 전체 직원수가 이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공공도서관 전체 직원 1인당 또는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이용자수에 있어서 청주시가 상기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주시의 공공도서관 인력이 비교 대상 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현행 도서관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직원수를 준수하지는 못하더라도 타 지자체 수준의 직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정규 직원 23명(사서 17명, 행정직원 6명)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먼웨어측면에서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청주시 공공도서관이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도서관 이용 정책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참고봉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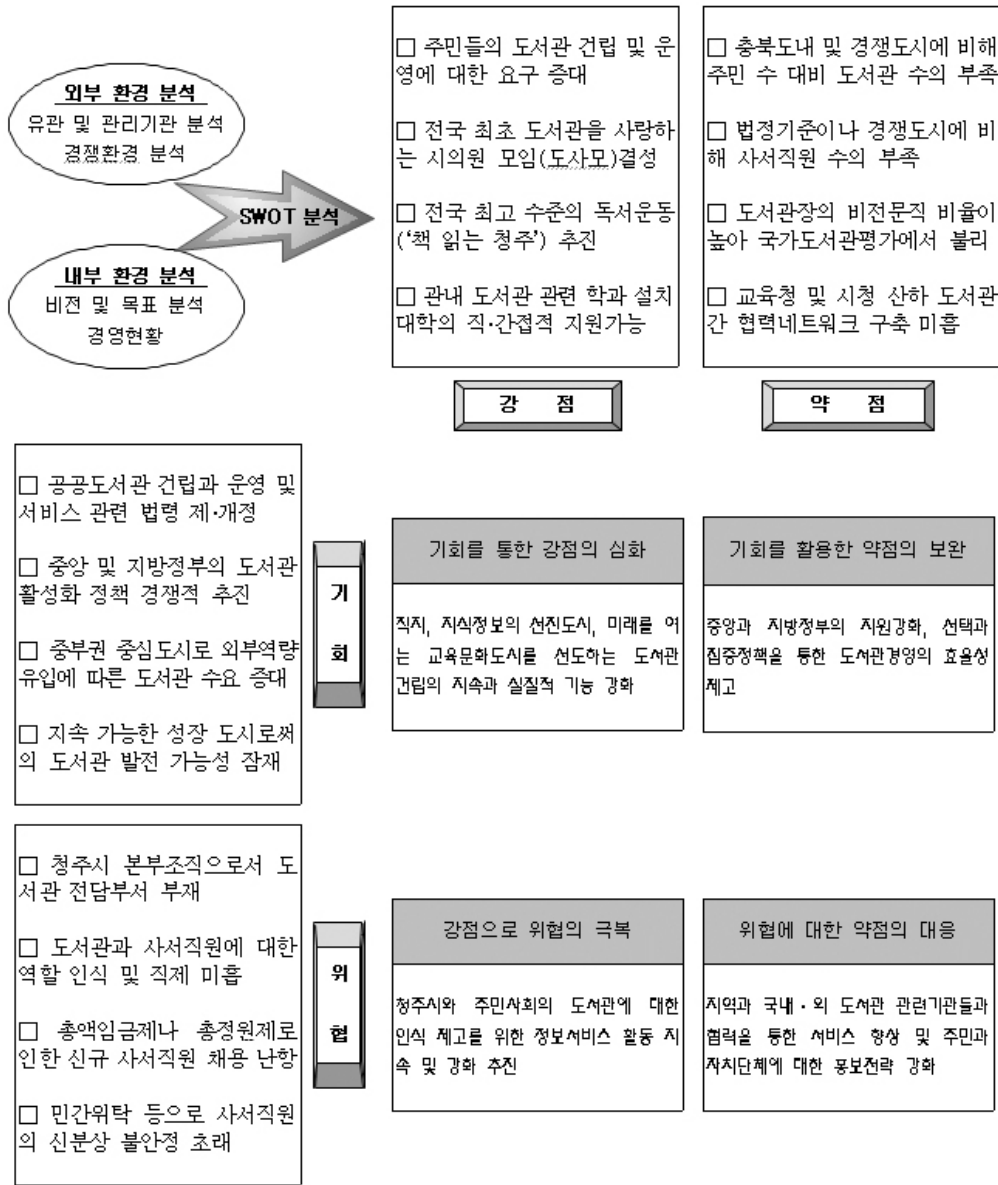
3. 청주시 공공도서관 SWOT 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최근 청주시도 2003년 시립도서관의 건립과 함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2006년부터 '책 읽는 청주'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

라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면에서 전국적인 현상을 선도하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주시의 도서관 환경을 SWOT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면 <그림 2>와 같다(곽동철, 윤정옥 2011, 119).

현재 청주시 도서관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음. 즉, 청주시는 시·도의원 선거에서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의회에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의원 모임(도사모)'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주민 독서운동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으로 '책 읽는 청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독서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치단체, 교육청, 방송국이 함께하며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주시는 도서관 관련 학과로서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학의 전문 인력 활용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주시 산하 도서관들은 다음과 같은 약점도 지니고 있다. 청주시의 도서관 관수는 주민 수 대비 도서관 수를 산정하면 충청북도 전체 시·군 가운데에 하위 수준이며 경쟁도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제고할 전문 인력인 사서직원 수 역시 도서관 관계 법규에 따른 법정기준이나 경쟁도시에 비해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매년 대통령 소



〈그림 2〉 청주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도출

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평가에서 도서관별 도서관장의 비전문직 비율이 높아 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고,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산하 도서관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강점이나 약점도 도서관 주변 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에 따라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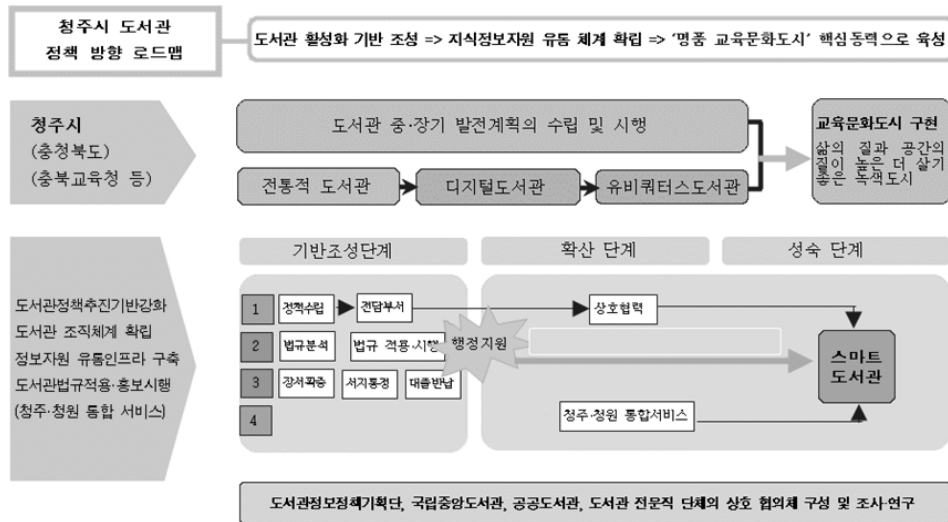
을 모색할 때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도서관의 기회요인으로는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와 함께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형성하였다. 또한 국가 초고속통신망 구축으로 지식정보 이용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식경영, 이러닝(e-Learning), 정보통신 기술 혁신, 도서관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청주시는 중부권 중핵도시로 외부 역량 유입에 따른 도서관 수요가 증대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서의 도서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도서관 발전의 위협요인으로는 청주시 도서관은 본부조직으로 중·장기적 발전을 선도할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도시에 비해 도서관장의 사서직 임명 비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청주시 도서관들이 최근 들어 건립·운영되고 있어서 청주시와 주민들의 도서관과 사서직원에 대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이 외에도 정부차원의 총액임금제나 총정원제 실시로 인해 신규로 전문사서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도서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함께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이와 관련 지워 추진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

이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첫째, 기회를 통한 강점의 심화 전략으로서, 청주시는 직지, 지식정보의 선진 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문화도시를 선도하는 도서관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도서관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기회를 활용한 약점의 보완 전략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정보 유통기반을 확충하며, 선택과 집중 정책을 통한 도서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강점으로 위협의 극복 전략으로서, 청주시와 주민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형성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위협에 대한 약점의 대응 전략으로서, 도서관은 지역과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전술한 청주시 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들도 위의 네 가지 전략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략들을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주시가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현안 사항 및 문제점 및 시 차원의 발전계획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정책 방향 로드맵을 작성하여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곽동철, 윤정옥 2011, 124).



중분류	소분류	기반조성단계		확산단계		성숙단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서관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책기반조성	제도정비방안연구		사서직제 전문화		도서관 특화/위상 제고
	정보기술 활용능력 제고	정보기술연계방안연구		연계활용 시스템구축		지역지식정보센터 역할
	중·장기 발전정책	운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수립		성과분석 및 평가
	도서관간 협력 강화	협력체계 확립		교류확대		협력시스템구축운영
도서관 조직 체계 정비	조직개편 및 전문직화	제도정비방안연구		사서직제 전문화		도서관 특화/위상 제고
	도서관 조례 등 제·개정	도서관 조례 등 조사		도서관 조례 제·개정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
	직원재교육/위탁교육 강화	재교육 실태조사		재교육/위탁교육 강화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서직원 처우/직제 개선	등기부여/후생복지방안		사서직 증원/직제 조정		사서직 관장/분관장보임
지식정보자원 유통인프라구축	도서관장서의 확충	장서관리방안연구		주제 분담수서/관리		장서 공동관리체계 확립
	서지통정과 표준화	표준화방안연구		공동서지작성/활용		공동서지정보시스템구축
	전자출판물 수집·관리	분담수집/활용계획수립		디지털서비스 제공		하이브리드서비스 제공
	도서관건립·자원공유	기본계획수립/검토		세부계획수립/시행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관련법규 적용 및 청주·청 원 통합서비스	청주·청원 통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체계 수립		세부서비스 체계 확립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도서관 법규 적용/시행	관련 법규 조사·분석		관련 법규 적용/시행		관련 법규 준수/선도
	도서관 기준 현실화	기준개발 방향 설정		기준 개선방안 모색		기준 상향 조정
	도서관 홍보 강화	기본계획수립		이용자별 홍보전략 수립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그림 3〉 청주시 도서관의 정책 방향 로드맵

4. 청주·청원 통합시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향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 기본방향은 '교육'과 '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두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공공도서관은, 첫째, 주변의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통한 개방성과 네트워크화 기반의 도서관, 셋째, 지역의 차별성을 살린 독자적 이

미지를 함양하는 도서관, 넷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이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도서관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의 건립·운영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청주시 및 청주-청원 통합시의 권역별 수요와 건립 예정 지역을 아래와 같이 각각 도출하였다.

우선, 청주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기본 구상은 국가 도서관 정책 목표에서와 같이 주민 5만명당 1개관으로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1차적으로 주민 7만명당 1개관을 건립·운영하고, 더불어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건립 또는 지원하면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은 초기단계에서 인구 66만명, 도서관 1개관당 7만명 기준으로, 발전단계에서 인구 66만명, 도서관 1개관당 5만명 기준으로, 성숙단계에서 인구 100만명, 도서관 1개관당 5만명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 소재의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주시 전체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전제로 청주시 공공도서관 수요는 국가 도서관 정책에 의거 5만명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에 13개관(661,793명/50,000명=13개관)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전제로 하면, 모두 16개관(817,794명/50,000명=16개관)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주시의 경우에, 주민 7만명당 1개관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9~10개관(661,793명/70,000명=9.45개관)이 필요하며, 현재 7개관이 건립·운영(건립중인 남부도서관과 교육청 소속의 충북중앙도서관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주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 관계없이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2~3개관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이용자 수 및 도서관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청주시 권역별 주민 수 및 도서관 현황

권역별	소속 동	주민 수	공공도서관	규모	대학도서관	건립순위
중앙권역	중앙, 성안, 탐·대성, 사직, 사창, 우암, 수동 등	83,172	충북중앙도서관(교) 상당도서관(시)	대 중	청주대	
동부권역	영운, 금천, 용담·명암·산성, 용암, 용정, 방서 등	131,088	시립도서관(시) 청남어린이도서관(시)	대		어린이 (1차)
서부권역	복대, 송정, 강서, 비하 등	117,075	서부도서관(시) 신울봉어린이도서관(시)	중 소		
남부권역	모충, 수곡, 분평, 산남, 미평, 성화·개신·죽림, 가경 등	222,168	청주기적의도서관(시) 남부도서관(시)	소 중	충북대 서원대 청주교대	공공 (2차)
북부권역	운천·신봉, 봉명, 송절, 내덕, 울량·사천, 주성, 주중 등	108,290	북부도서관(시)	중		공공 (1차)
계		661,793	<추가 소요> 공공도서관 2개관, 어린이도서관 1개관			

* 도서관규모는 2011 전국도서관평가 기준에 의한 구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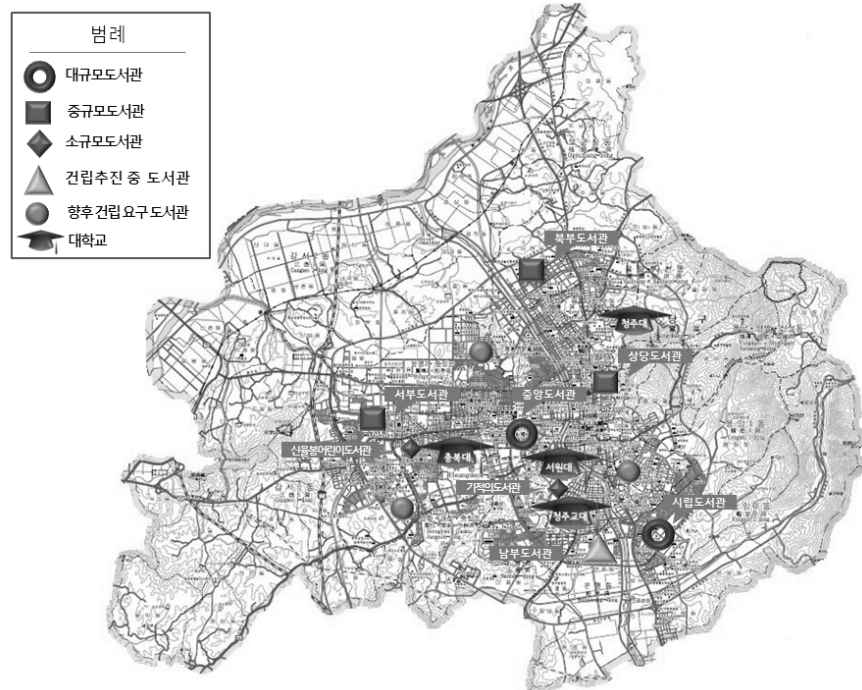
청주시의 권역을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면, 중앙도심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권역별 소속 동명, 주민 수, 공공도서관 수, 도서관 규모 및 대학도서관을 비교하면, 같은 청주시민이지만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혜라는 측면에서 권역별 격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에,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건립의 후보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민 수가 많아 도서관 서비스 수혜 기회가 적은 동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 공공도서관의 규모나 주민의 동선 및 인구밀도, 그리고 권역 내의 대학도서관 존재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청주시는 북부권역(운천·신봉동, 봉명동, 송절동 등)과 남부권역

(성화·개신·죽림동, 가경동 등)에 각각 공공도서관 1개관씩, 동부권역(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등)에 어린이도서관 1개관을 추가로 건립하거나 청남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 조직 및 체계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과 청원군 인근의 경계 지역에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청주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권역별 도서관의 신규 입지 선정 및 도서관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곽동철, 윤정옥 2011, 137).

그 다음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전제로 한



<그림 4> 청주시 공공도서관 권역별 신규 입지 선정 및 관계도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기본 구상은 지역별 주민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면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청원군 지역에는 주민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으로 산정한 16개관(817,794명/50,000명=16개관) 가운데 청주시의 7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관으로 산정한 9~10개관(661,793명/70,000명=9.45개관)을 제외한 6개관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며,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건립·운영 면에서 고려한 사항을 적용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청원군의 각각의 읍과 면의 인구 현황은

〈표 9〉와 같다.

현재 미원면에는 중규모의 청원도서관(교육청 소속)이, 옥산면에도 소규모의 옥산도서관(군립)이, 오창읍에는 중규모의 목령도서관(군립)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8월 6일 청원군은 오송지역(강외면과 강내면 인근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인근 강외면 연제리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 어린이 열람실, 평생학습실, 디지털 자료실, 공연장 등을 갖추 계획이며, 2012년 말에 준공하여, 2013년부터

〈표 9〉 청원군 인구 현황(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명, 세대)

읍면동	2010년 12월				전 월		증감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계	남	여		인구수	세대수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합계	152,944	78,675	74,269	62,144	152,129	61,430	▲ 815	↑ 3,161	▲ 714	↑ 2,271
내수읍	22,595	11,494	11,101	8,862	22,645	8,867	▼ -50	▼ -116	▼ -5	▲ 116
오창읍	41,816	21,508	20,308	16,047	41,626	15,890	▲ 190	↑ 1,636	▲ 157	▲ 887
남성면	2,538	1,329	1,209	1,173	2,553	1,173	▼ -15	▲ 30	▼ 0	▲ 37
미원면	5,799	2,973	2,826	2,776	5,827	2,785	▼ -28	▼ -96	▼ -9	▲ 56
가덕면	4,488	2,380	2,108	1,976	4,509	1,990	▼ -21	▼ -119	▼ -14	▼ -7
남월면	7,709	3,960	3,749	2,929	7,745	2,947	▼ -36	▼ -161	▼ -18	▼ -36
남이면	7,191	3,763	3,428	3,106	7,201	3,118	▼ -10	▼ -7	▼ -12	▲ 85
문의면	5,049	2,597	2,452	2,106	5,046	2,110	▲ 3	▼ -49	▲ -4	▲ 15
현도면	4,367	2,263	2,104	1,987	4,390	2,003	▼ -23	▼ -81	▼ -16	▼ -5
부용면	7,228	3,732	3,496	3,015	7,215	2,993	▲ 13	▼ -144	▲ 22	▲ 1
강내면	11,228	5,710	5,518	4,411	11,234	4,414	▼ -6	▲ 189	▼ -3	▲ 89
강외면	16,529	8,352	8,177	6,941	15,699	6,298	▲ 830	↑ 2,389	▲ 643	▲ 968
옥산면	10,579	5,530	5,049	4,232	10,591	4,264	▼ -12	▼ -219	▼ -32	▼ -3
북이면	5,828	3,084	2,744	2,583	5,848	2,578	▼ -20	▼ -91	▼ 5	▲ 68

〈자료〉 청원군청 통계정보, <http://stat.puru.net/main.jsp>

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2011년 하반기 중 첨단 의 과학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생명연구자원의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센터는 의과학지식운영과와 의생명정보분석과, 임상연구자원과, 의과학지식표준과 등으로 구성된 국립의과학도서관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이용이 많은 청주시립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될 경우에 추가로 도서관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 가운데 4곳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라는 설문에 대해, '오창읍'이 18.5%로 가장 높았고, '내수읍(16.7%)', '문의면(9.2%)'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옥산면(8.5%)', '남일면(7.1%)', '강내면(6.8%)', '가덕면(6.1%)', '남이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술한 청원군의 기존 도서관 및 건립 예정인 도서관을 포함하여 봉사대상 주민 수와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가 적은 지역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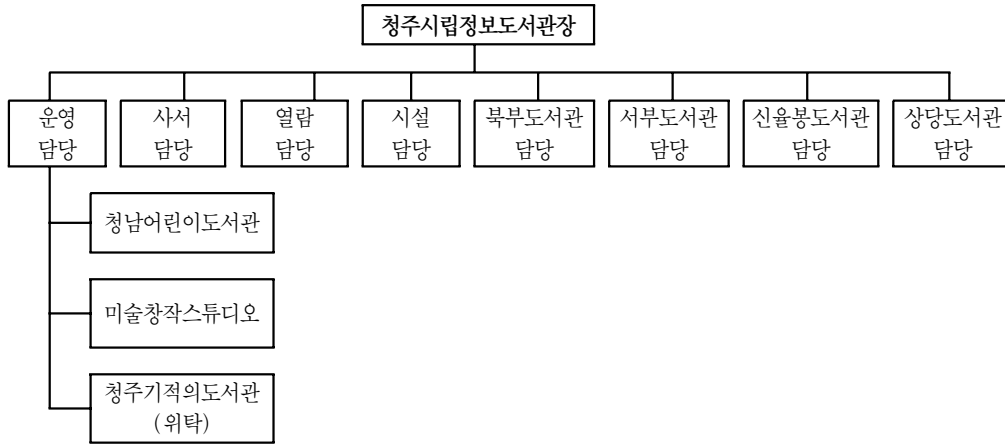
공도서관 건립 예정 지역을 도출하면, <표 10>에서와 같이 (1) 내수읍과 북이면 지역, (2) 남일면과 가덕면 및 문의면 지역, (3) 남이면과 부용면 및 현도면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주·청원 통합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권역별 도서관의 신규 입지 선정 및 도서관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곽동철, 윤정옥 2011, 140). 이와 함께 청주시는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건립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전술한 인력과 장서를 포함하여 시스템 부문은 제외하고 운영조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청주시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8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청주기적의어린이도서관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7개관은 직영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 청주시립도서관은 대형도서관으로, 북부, 서부, 상당, 남부도서관은 중형으로,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청남어린이도

<표 10> 청원군 권역별 주민 수 및 도서관 현황

권역별	소속 동	주민수 (명)	공공도서관	규모*	대학도서관	건립후보 지역순위
동부권역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25,583	청원도서관(교육청, 미원)	중	공사	공(3차)
서부권역	옥산면, 강의면, 강내면	38,336	옥산도서관(군립, 옥산) 오송도서관(군립, 건립중, 강의)	소 중	충청대 국립의과학도서관	
남부권역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18,786				공(2차)
북부권역	오창읍, 내수읍, 북이면	70,239	목령도서관(군립, 오창)	중	주성대	공(1차)
계		152,944	<추가 소요> 공공도서관 3개관			

* 도서관규모는 2011 전국도서관평가 기준에 의한 구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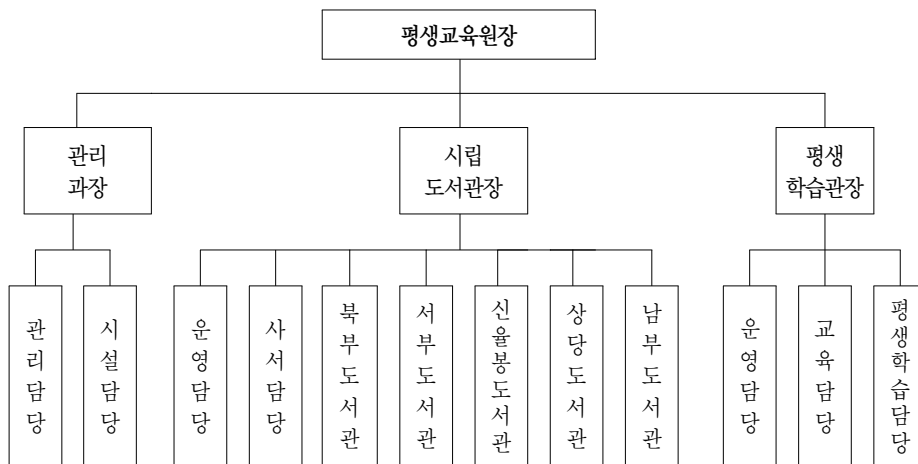


〈그림 6〉 청주시립도서관 조직도

함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업무도 평생교육원 관리과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오히려 청주시립도서관의 중앙관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정보도서관의 조직은 〈그림 7〉에서와 같이 기존의 도서관장과 3개 담당(사서담당, 열람담당, 운영담당) 및 각 분관담당에서 도서관장과 2개 담당(사서담당, 운영담당) 및 각 분관담당으로 축소되었다. 즉, 청주시립도서관의 '사서담당'과

'열람담당'을 통합하여 '사서담당'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청주시 사업소로서 평생교육원이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관 규모 및 이용자의 신규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사서·행정직원 등을 충원하게 되면 오히려 이전의 조직보다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도서관 이용 편의 개선이나 소셜 네트워크



〈그림 7〉 청주시 평생교육원 조직도

(Social-network)를 활용한 모바일 전용서비스 제공 등 신규 수요에 대처하고, 민선 5기 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의 확대 설치 및 각종 지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주택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작은도서관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담 지원인력과 조직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5. 제언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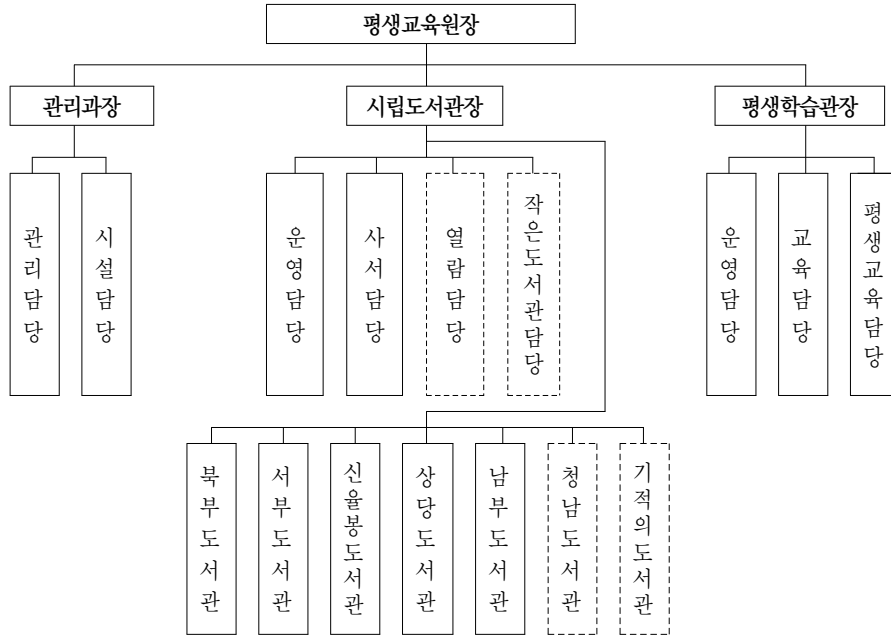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조직 문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전술한 내용에 추가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의 공동 관심사인 인력 확보와 조직 체계 확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들 가운데 도서관 관련 활동이 활발한 곳은 부천시와 완주군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 분부 조직으로 도서관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천시의 경우에는 국 단위의 '교육정보센터'를 두고 산하에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두고 있으며(<http://www.bucheon.go.kr>), 완주군의 경우에도 '문화관광과' 산하에 '도서관담당'을 두고 있다(<http://office.wanju.go.kr>).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의 총액임금제 실시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정보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므로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청주시는 공공도서관의 인력 확보가 지자체장의 결단으로 도서관 관련 법규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고품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나 완주군의 사례를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림 8>에서와 같은 조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청주시가 도서관 조직을 중앙관(정보도서관)과 분관(북부, 서부 ……) 형태로 구성한 후, 도서관간 상호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따라 중앙관과 분관의 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함과 함께 전문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면서, 각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청주시 시립도서관이 행정직 국장으로 보임하는 평생교육원장 산하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국도서관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직 도서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특성화는, 이를테면, 각각의 도서관이 기본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주제 분야를 특성화하여 주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시립도서관은 미술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예술특화도서관으로, 북부도서관은 직지와 연계하여 직지특화도서관으로, 서부도서관은 청주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특화도서관으로, 상당도서관은 시청과 시의회와 연계하여



〈그림 8〉 청주시 평생교육원 조직 확대(안)

행정특화도서관으로, 남부도서관은 두꺼비생태 마을과 연계하여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특성화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건립되는 도서관의 특화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조애란 2012, 86).

이와 함께 청주시가 근원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인력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기본적인 책무로 여기고 직영하거나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청주시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차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 선진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시가 산하 모든 도서관을 직영하는 방안이다. 즉, 청주시가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할 때마다 최소 기본 인력을 채용하고, 각 도서관마다 충분한 외부인건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 필요 인력을 한시적으로라고 채용하여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심과 도서관 측의 세밀한 인력 계획의 수립과 적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청주시가 산하 모든 도서관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서관의 업무 가운데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부분 위탁 성격의 아웃소싱(외주)하는 방안이다. 이를테면, 도서관의 열람실, 안내데스크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전문성을 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외주)을 추진하

되, 이 경우에 대체근무자를 전문직 사서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청주시가 규모가 큰 도서관인 권역별 도서관은 직영하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 등은 아웃소싱(위탁)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특히, 청주시가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 대해 위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서관을 청주시 산하 하나의 도서관으로 다루어야 하고, 청주시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및 목표 등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청주시에 다수의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있어서 도서관을 더욱 잘 경영하려는 경쟁이 존재할 때 성공 확률이 높지만, 현재 청주에는 그러한 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아 전면 실시에는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도서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단체가 기관의 이익 창출을 위해 청주시 지원예산에 욕심을 갖고 도서관을 장악하려고 들면 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청주시 산하 전체 또는 일부 도서관을 아웃소싱(위탁)하는 방안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크게, '외주', '위탁(민간위탁, 공단위탁, 재단위탁 등),

'민영화(민간화)'로 구분하는데, 현재 극히 일부이지만 국내·외 도서관계에 나타나는 아웃소싱은 크게, '외주', '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외주'는 둘째 항에서와 같이 도서관에서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계에서의 '위탁' 유형은 '민간위탁', '공단위탁', '재단위탁', '대학위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지자체 입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측면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시행계획에는 청주시가 공공도서관을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총액임금제 등으로 인력 확보 등의 면에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여러 가지 차선택들을 비교·검토하여 청주시에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청주시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천시나 원주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자체장의 많은 관심과 지자체의 본부 조직으로 도서관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도서관 사업의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경기도. 2008.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 수원: 경기도.
- [2] 박동철, 윤정욱. 2011.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 [3] 관악구. 2011.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서울: 관악구.
- [4] 부천시 홈페이지. [online]. <<http://www.bucheon.go.kr>>.
- [5] 양주시립도서관. 2007. 『양주시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 양주: 양주시립도서관.
- [6] 원주군 홈페이지. [online]. <<http://office.wanju.go.kr>>.

- [7] 조애란. 2012. 『청주·청원지역 공공도서관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8] 천안시. 2008. 『2020년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 계획』. 천안: 천안시.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yeonggi-do. 2008. *The Research on the Operational Master Plan for Gyeonggi Province Library*. Suwon: Gyeonggi-do.
- [2] Kwack, Dong-Chul, & Yoon, Cheong-Ok, 2011. *Th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Libraries in Cheong-ju*. Cheong-ju: Cheong Ju Library.
- [3] Gwanak-gu. 2011. *Th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Libraries in Gwanak-gu*. Seoul: Gwanak-gu.
- [4] Bucheon City Homepage. [online]. <<http://www.bucheon.go.kr>>.
- [5] Yang-Ju City Library. 2007. *The Comprehensive Plan for Constructing Libraries in Yang-Ju City*. Yang-Ju: Yang-Ju City Library.
- [6] Wanju-Gun Homepage. [online]. <<http://office.wanju.go.kr>>.
- [7] Jo, Ae-Ran. 2012. *A Study on the Integrate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and Cheongwon*. M.A. thesis, Cheongju University.
- [8] Cheonan City. 2008. *The 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Libraries of Cheonan City in 2020*. Cheonan: Cheonan City.